"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국민적 관심 고조

KBS, KTV, EBS 등 방송사와 일간지, 무료지, 수산전문지 등 대대적 홍보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어촌관광진흥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2006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는 지난 5월 30일, 세계일보에 "6월, 전국어촌에 축제의 장 열린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6월 15일, 문화일보의 "게 · 조개 잡고… 어! 고향에 왔네", 6월 15일, 무료지 AM7 "남도 은빛바다로 五感만족 여행", 국정브리핑 "빠지고 칠해봐야 갯벌의 소중함 알죠" 등에 행사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었으며 한국수산신문 등 수산전문지와 여행전문지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방송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6월 4일, KBS 해양기획 "바다는 내친구" 특집 생방송에 모집일정이 소개되었으며, CBS 라디오 "김용신의 굿뉴스 투데이"와 EBS 라디오 "한영애의 문화 한 페이지"에서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관계자의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정책방송 KTV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에서는 어촌 현장을 직접 방문 취재하여 6월 26일부터 1주일간 매일 30분씩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 일간지 문화일보, 세계일보와 무료지 AM7, 수산전문지 등에서는 넓은 지면을 할애하여 행사개요 및 일정을 안내했고, 지난 6월 10일 실시된 1차(안산 대부도 선감마을), 2차(고창 하전마을) 행사에 대한 참관기도 게재했다.

인천 앞바다 정화사업 추진

표층, 중층, 저층 등 3분야로 사업 추진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 26일 인천광역시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장마철 한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와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어구 등을 수거하는 인천앞바다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한다.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 간 총 2,054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인 이 사업은 먼저 사업기간 동안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선에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오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을 추진, 총 1,344톤을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한강 하구인 염하수로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장마철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270톤을 수거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월도, 문갑도, 장구도 및 지도, 초지도, 덕적도 등지의 해역에서는 정화선을 이용하여 침적쓰레기 440톤을 수거하게 된다.

매년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수행하게 된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관내 앞바다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생산량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협회는 사업장별 어촌계원 및 수협,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군 2함대 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